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3(장학위원회)

YWCA 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9년 5월호
May
Vol.560

기획 '동일임금의 날'

이달의 현장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발족 기자간담회와 5.24토론회

이달의 포커스

혐오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다시보다
허구에서 떨어져 나온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역사, 최용신

탈핵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소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여성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YWCA가 국가와 여성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바라면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우표는 한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어 유익한 정보를 주고, 낱자도장은 우편물의 접수를 증명하는 도장으로 기념,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넣기도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YWCA 창립 40주년(1962), 창립 50주년(1972), 창립 60주년(1982)을 기념하여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낱자도장을 만들었다.

한국YWCA 창립 40주년 기념우표와 기념도장(1962)



YWCA 창립40주년 기념우표
 우표번호 324
 발행량 500000
 디자인 YWCA 마크와 여인
 디자이너 강춘환
 발행일 1962. 4. 20
 액면가격 40환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YWCA 창립 제40주년 기념도장
 디자인 YWCA 마크를 든 여인
 디자이너 강박
 발행일 1962. 4. 20.
 사용기간 1962. 4. 20. ~ 4. 26.

한국YWCA 창립 50주년 기념우표와 기념도장(1972)



한국YWCA 창립50주년 기념우표
 우표번호 804
 발행량 1000000
 디자인 YWCA 마크와 나비
 디자이너 이근문
 발행일 1972. 4. 20.
 액면가격 10원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한국YWCA 창립50주년 기념도장
 디자인 YWCA회원과 심볼
 디자이너 전희한
 발행일 1972. 4. 20.
 사용기간 1972. 4. 20. ~ 4. 26.

발행이유 체신부에서는 우리나라 YWCA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룩한 업적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와 여성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바라면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한국YWCA 창립 60주년 기념우표와 기념도장(1982)



한국YWCA 창립60주년 기념도장
 우표번호 1249
 발행량 4000000
 디자인 심벌과 여성
 디자이너 손정식
 발행일 1982. 4. 20.
 액면가격 60원
 인쇄처 한국조폐공사



한국YWCA 창립60주년 기념도장
 디자인 YWCA 심벌 마크
 디자이너 손정식
 발행일 1982. 4. 20.
 사용기간 1982. 4. 20. ~ 4. 26.

발행이유 체신부에서는 한국YWCA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YWCA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줄 것을 기원하면서 이 우표를 발행한다.

출처 우정사업본부

2019. 5 한국YWCA



표지이야기

한국YWCA는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춘천YWCA는 5월 14일(화) 춘천 명동거리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9년 6월 주요일정

6월 10일~11일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3~4년차)

6월 11일~12일
 돌봄종사자 역량강화교육

6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6월 17일~18일
 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5~7년차)

6월 20일
 제3차 길 위의 평화포럼

6월 26일~30일
 YWCA 아시아지역회의

제55권 제4호 통권 560호

2019년 5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라 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새로운 구조로 100주년 향하는 YWCA | 원영희
- 05 **말씀 묵상** '정상가족'이후의 가족 | 이숙진

기획 '동일임금의 날'

- 06 ①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향한 6년의 시도 | 김은경
- 08 ② 남녀임금격차는 구조적 문제다 | 김예지
- 10 ③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편집실

- 12 **이슈** 2019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YWCA | 손병덕
- 14 **평화** 새로운 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 여성에게서 길을 찾자 | 김은주
- 16 **여성**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 최소영
- 18 **탈핵**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소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 이유진
- 20 **청년토크** '플라스틱 디톡스' 우리 모두 함께하자! | 대학 청년Y

- 22 **이달의 현장 ①** 제1차 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워크숍 | 문윤희
- 24 **이달의 현장 ②**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 최수산나
- 26 **이달의 현장 ③**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발족 기자간담회와 5.24토론회 | 정서연
- 28 **이달의 포커스 ①** 혐오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다시보다 | 김민주
- 30 **이달의 포커스 ②** 허구에서 펼쳐나온 살아있는 독립운동의 역사, 최용신 | 이윤숙
- 3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루스 베이다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 | 김난주
- 34 **연합회 소식**
- 37 **회원이야기** 고의순 나눔장학금 장학생 양지혜
- 38 **회원YWCA 소식**

새로운 구조로 100주년을 향하는 YWCA, 청년 여성의 꿈을 펼치다!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

한국YWCA가 변화를 택했다. 곧 다가오는 백주년을 향해 가며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택한 이상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회원YWCA 회장단과 연합회 실행위원들은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관련 설명을 들으며 우선 시급한 사안인 3개 법인 공동 부속시설 특별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사회복지시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누적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 강화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운영법인의 책임으로 집중시켜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관리지침 개정으로 법인이 지회에 책임을 더 이상 위탁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설치신고증과 동일한 수탁법인 명의로 발급을 해야 한다. 바로 내년 2020년부터 적용된다. 복지시설 종사자 채용도 공개모집은 물론 법인 대표자 명의로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지침도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국YWCA는 2019년 현재 45개 회원YWCA에서 19종류의 178개 부속시설을 운영 중이며 그나마 위탁사업은 제외한 숫자이다. 회원 확보와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업의 창구로 회원YWCA들은 그동안 부속시설 운영을 YWCA운동 확산의 바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YWCA의 소속 운동체로서 정체성 약화는 물론 본부 실무력 약화, 복지시설 운영 주체로 운영능력, 재정 문제도 드러나고 부속시설 운영지침 위반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그리고 부속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부 고발이나 불만제기 등을 고려해 YWCA 정체성이나 소속 의식을 강하게 거론할 수 없게 된다. 당장 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부속시설 중 후원회 소속 사회복지시설인 100여 개의 명의를 후원회로 변경해야 하는 현실이다. 다행히 한국YWCA는 지난 4월 전국회장단협의회 비상 총회에서 관리 원칙을 결의하여, 당분간 법인 명의를 신규 부속시설 수탁을 전면 중단하고, 회원YWCA 명의를 부속시설 수탁도 전면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에는 부속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 TF팀이 꾸려졌고, 전문가 도움으로 공정한 조사지표를 마련하면서, 지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 욕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 있는 욕의 고백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새롭게 구조를 정비하며 100주년을 향하는 YWCA!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 평화, 여성운동을 한다. 이제는 세계를 품고, 지역을 품는 청년 여성들과 함께 더 힘차게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정상가족’이후의 가족



이숙진
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신학자


■ 마가복음 3장 31~35절/ 마태복음 12장 46~50절/ 누가복음 8장 19~21절

‘2017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를 보면 서울거주 25~39세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독신입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은 해체 일로에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가족형태는 변해왔습니다. 산업화사회에서 전통가족이 해체되었듯이 후기산업화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역할 분업에 기반한 정상가족모델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족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공간은 교회이지만 교회는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지지합니다. IMF체제와 세계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위기담론이 유포되고, 아버지 위상회복에 초점을 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은 인기를 더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잡을 때 가정이 유지된다고, 가부장주의를 신앙적 차원에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온건한 가부장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남성지배적 문법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근본주의로 향하는 이러한 실천은 퇴행적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아버지가 중심점이 된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판타지입니다. 가족판타지는 종종 가부장적 가족이 아닌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대의 가족은 인종과 국가, 종교, 성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 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역행할 수 없다면, ‘정상가족’과 ‘결손가족’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면 가정과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나이브한 교회의 아버지담론은 사회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나 개별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정상가족 해체 이후의 가족을 상상해봅니다. 본문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 들입니까?”라며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고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주목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서술 그 어디에도,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누락함으로써 가부장적 정상가족의 질서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재정의한 가족에는 자매들이 추가됩니다. 1세기 유대에서 자매들, 여자들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매를 형제와 동등한 가족의 주요 구성원으로 언급하십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가족은 아시다시피 혈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입니다. 가족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새로운 가족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족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향한 6년의 시도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YWCA는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을 전개해왔다. 2019년 올해에도 전국 회원YWCA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지난 5월 22일(수) 토론회를 열었다. 6년째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금융권의 채용 성차별 현황이 밝혀지면서 차별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분노했다. 미투에 이은 페이미투의 시작이었다. '대한민국 여성은 연간 근로일 기준 85일을 더해야 비로소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등의 외침은 더 이상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YWCA를 비롯한 여성계 내부의 다양한 문제 제기과 지속적인 운동 덕분에 성차별적 임금에 관한 언론 기사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OECD 통계 작성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사회 남녀 임금 격차 현실과,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관련 법 그리고 정부 대책이다.

관련 입법 시도, 해당 상임위에 표류 중

2013년 11월,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날을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전반기, 6명의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으나, 2019년 5월 현재, 신용현 의원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¹⁾을 마지막으로 관련 입법 시도는 별다른 성과 없이 해당 상임위에 표류 중에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17년 기준 성별임금격차 34.6%로 30%대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에서도 한국여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²⁾ 이와 같은 수치는 한국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견고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성별임금격차 5,085원 = 설명되는 차이 1,687원 + 설명되지 않는 차별 3,399원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동일임금의날 토론회'에서 김난주 박사³⁾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37%는 남성과 달리 30대에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보다 높은 비정규직 15시간 단시간 근로, 시간제 근로, 중소기업 종사비율에 근거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34.6%로 OECD 국가 중 1위다. (2017년 기준)

하며, 경력단절로 인한 승진경로 차단, 재취업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낮은 댓가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의 엄격한 집행과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고용조치(AA)'의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여성 집중 일자리의 임금 현실화와 노동권 보호,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제안했다.

현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첫째, 성차별 고용 관행 타파 즉,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둘째, 양질의 일자리 환경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유도,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 문제는 이 모든 내용들이 계획과 시도일 뿐 성과와 현실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 가능하지 않다

지난 2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차별적 임금이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별임금격차가 낮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그리



임금격차로 인한 여성들의 빈 가방을 표현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가방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이유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녀임금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공정임금법, 동일임금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강제 보고 체계에 관한 입법, 강제적인 동일임금계획 수립 등 입법적 또는 비입법적 방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격차 타파를 위해 좀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제가 빈곤한 한국사회 현실은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시도하는 최근의 변화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와 같은 조치들의 적용과 실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제 규약은 물론 헌법 및 관련법이 요구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현장 적용과 여성차별현실이 집약된 남녀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사회정의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로, 이는 보다 평등하고 결속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YWCA, 그리고 여성들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4) 이광재.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80-84.

1)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한다.
2) OECD 국가 중 여성저임금 비율 37.2%, 남성 저임금비율 15.3% (2016년)
3)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YWCA연합회. 2019. 5. 22. pp.12-49

남녀의 임금 격차는 구조적 문제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김예지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한국YWCA연합회와 행동하는여성연대 주관으로, 1부에서는 한영수 연합회 회장의 환영사와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과연 여성은 정당한 이유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김난주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 발제했다.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36.7%(2016) 1위로 2위인 에스토니아(28.3%)와는 큰 격차로 1위에 등극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38.7%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만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2%로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성이다. 한국이 꾸준히 1위를 지켜온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만 봐도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2018년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성별 시간당 임금 격차를 요인별로 분석해봤을 때 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설명이 되는 차이는 33.2%였으나, 그에 비해 설명되지 않는 차이는 66.8%에 달했다.

여성들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설명되는 차이 중 하나인 근속년수에서조차 한국은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해 그 차이가 발생한다. OECD 연령별 여성 고용률에서 한국 여성은 20대 후반에서는 평균이었다가 30대 초반에서는 6.3%, 후반에서는 10.3%까지 낮아진다.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난주 박사는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며, 전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관리자수 자체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가 돌봄의 사회화로 관련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일자리에 대한 임금 현실화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회사 관행이라 잘못된 것인지 물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 사이: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 발제를 이어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업무 차별, 하대, 업무에서의 배제,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업무 이외의 노동 등은 성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성차별이 불법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남녀 임금 차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고 남녀의 임금 격차나 채용 차별이 구조적 문제임에도,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여성은 하대 받고 있는데, 직업적 호명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주체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줌마’ 같은 식의 호칭으로 불렸다. 언어가 프레임을 형성하듯이 공적인 언어로 불리워지지 않는다면 여성은 영원히 공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여성은 직장에서조차 성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주어진 업무 외에도 많은 것을 수행해야 한다.

배진경 대표는 결국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성평등 노동’임을 강조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차별을 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4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실시할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성평등임금공시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사정 사회적합의를 통해 성평등임금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은 YWCA의 동일임금의 날 운동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일임금의 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를 발송한 것, 정책




김예지 위원이 '우리는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을 경험한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토론회와 캠페인, 좌담회, 36개 지역YWCA에서의 페이미투 운동 등을 소개했다.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는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해 해운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으며,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으로 참석한 나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20대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여성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고민을 공유했다.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차별 사라지길

참석한 모두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동일임금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누고, 성별 임금 격차와 채용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더 많은 여성단체가 연대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곧 사회로의 첫 발을 디뎌야 할 여성청년인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 진출 단계부터 유리장벽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깨닫고 암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여성이 이 유리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바람대로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토론회, 더 나아가 동일임금 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길 소망한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으로 #페이미투 에 응답하자!

#PayMeToo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

한국YWCA는 2014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전국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5월 14일(화)부터 29일(수)까지 21개 회원YWCA(고양, 광주, 김해, 대전, 대구, 목포, 부천, 서울, 성남, 수원, 세종, 안양, 익산, 인천, 전주, 창원, 천안, 춘천, 통영, 파주, 포항)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부천YWCA 5.23(목) 부천YWCA회관



서울YWCA 5.21(화) 연합회 회관 앞



성남YWCA 5.22(수) 아탑3동 주민센터 부근



세종YWCA 5.25(토) 새롬가족복지센터



수원YWCA 5.28(화) 수원시 화서역



안양YWCA 5.28(화) 범계역 로데오거리



익산YWCA 5.29(TN) 익산YWCA 회관 앞



인천YWCA 5.18(토)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주YWCA 5.23(목) 젠더문화축제 부스



고양YWCA 5.28(화) 주업역



광주YWCA 5.28(화)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김해YWCA 5.29(수) 김해YWCA



황원YWCA 5.23(목) 가음정 시장 일대



천안YWCA 5.23(목) 천안YWCA 본관 앞



춘천YWCA 5.14(화) 춘천 명동



대전YWCA 5.28(화) 갤러리아타임월드



대구YWCA 5.25(토) 대구 어린이회관



목포YWCA 5.24(금) 평화광장



통영YWCA 5.25(토) 통영 RCE교육장터



파주YWCA 5.25(토) 예은문화마당



포항YWCA 5.20(월) 5호 광장



지난 4월 25일(목) 열린 2019년 YWCA 전국회장단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환경변화에 따른 YWCA 부속시설 운영과제' 강의를 듣고 '부속시설 관련 YWCA현황'을 전국회장단과 공유했다.

손병덕

YWCA 부속시설 특별조사 연구책임자·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나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정부는 경제부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변화 요구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

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나라를 말한다. 흔히 '노르딕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그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데, 국민의 가치분 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 성장정책, 고용정책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말한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되고 2018년부터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복지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복지인프라 정비'는 현 문재인정부의 100대 전략과제 곳곳에 반영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조직 활용,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사회복지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복지인프라 정비: 사회복지법인의 책무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

한 나라의 복지제도는 각종 사회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이러한 역할 수행이 미흡한 상황이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및 기능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구축을 복지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그동안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인프라는 크게 시와 구 등 공공이 설립을 책임지고 이후에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위탁운영 방식(이하 위탁운영)과 민간이 설립과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민간직접운영 형태(이하 민간직영)로 구분할 수 있다. 위탁운영과 민간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인프라는 영역에 따른 차별성이 있으나 시설 운영비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위탁운영 뿐만 아니라 민간직영 방식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즉 공적 책임성을 확보해야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다.

YWCA의 복지운동


지난 5월 7일(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종교계 사회복지 관련 10개 법인·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했다.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참석자 대부분은 수십 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뤄져 온 행정을 기존 법령이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규정한 채 1년이라는 유예기간만 두고 개정사항을 강행하려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들을 위해 발표한 지침으로 매년 작성, 발표하고 있다.

한국YWCA를 비롯한 종교사회복지법인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부수립이후 한국의 복지를 주도해 온 종교계의 공로가 간과된 채 문제점만 부각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가 무엇이어야 하고, YWCA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이다. 과연 수많은 사회복지 운영 법인들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체계 전반을 이해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사회복지 운영 법인들이 지역차원의 지원 및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협력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고 서비스이용 접근성을 높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책임성을 높인 전문적이고 소명에 찬 지역기관 및 시설의 모습을 추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YWCA는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찰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 여성에게서 길을 찾자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새로운 100년 앞에 선 우리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년 동안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미는 모두 전대미답(前代未踏)의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었던 시간이었다. 남·북·미 모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남한은 항구적 평화체제와 ‘하나의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선택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생소함과 불편함으로 적지 않은 파열음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러나 남·북·미 모두, “되돌릴 수는 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발표하였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와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역량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신한반도체제 :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갈 평화협력의

질서로서 두 개의 축,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선순환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 개의 축은 긴밀한 한미공조와 북미대화의 타결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여 항구적인 평화협력공동체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의 축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비핵화 후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하여 남북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력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6.25전쟁의 법적 종식, 북한 비핵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포괄하는 적극적 평화·적극적 안보 개념의 정립과 이행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3대 경제협력벨트(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의 구축과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경제협력공동체의 구축을 도모해야 하며, 신 북방정책 및 신 남방정책과 연계된 동북아 및 아시아지역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와 아시아지역 차원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감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가 함께 평화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평화경제의 시대와 여성의 역할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결합어로서 평화와 경제의 선



북한 평양시의 한 장마당 모습. 북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마당을 필수적으로 통해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

순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화가 경제이익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경제이익이 평화를 유지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경협과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은 군사적 대결 보다는 호혜적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지리적 단절로 ‘냉전의 섬’에 갇혀 반도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남한은 대륙의 진출로가 봉쇄되었고 북한은 해양의 진출로가 차단된 형세가 되어 남과 북 모두 대외진출로가 제한받고 있다. 한반도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랜드 브릿지(land bridge)로서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서해경제권이라는 2개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결국, 평화경제는 ‘한반도-동북아-세계’를 향한 경제시장의 영토를 확대해가며, 이익을 확보하는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2019년 2월 현재 남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로 전체여성의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여성은 62%(2008년 인구조사통계)가 경제활동

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여성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유입으로 공식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북여성이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 및 관점이 반영된 남북여성 평화경제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적으로 진보·보수 및 사회단체 여성계의 교류, 중앙과 지방의 여성계 교류, 계층별·직업별 여성계의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류확대를 통해 남북여성교류를 대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이를 통한 하나의 시장형성이 여성개인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남북관계차원에서는 시장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에는 500여개에 달하는 시장(장마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장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그 시장의 중심에 여성이 서있다. 여성은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자로서, 다양한 형태로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을 매개로 한 여성교류, 예를 들어 개성시장나들이와 같이 소비자로서의 남한 여성과 생산자(유통자)로서의 북한여성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생활자로서의 남북여성들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20년 UN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북경2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과 같은 국제적 여성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CSW는 매년 세계 각국 대표와 여성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이 모여 성평등과 여성이슈를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유엔 여성 총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평화-발전’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추진될 북경2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남북여성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3주기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소영

연합회 Y아카데미위원회 위원·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총무

YWCA, 믿는페미 잇는예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성정의실현을 위한 기장 교역자모임,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NCK여성위원회 등 총 18개 단위가 공동주체로 5월 16일(목) 대한문 앞에서 강남역 여성혐오범죄3주기 연합예배를 드렸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호세아 10장 12절)는 주제로 교회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과 정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다

2018년은 우리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누가복음 11장 14절)이 나간 해였다. 법조계, 연예계, 문학계, 체육계, 교육계 등 어디를 막론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종교계, 특히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회여성들은 'CHURCH TOO'를 외친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WITH YOU'를 선언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야 우리는 교회성폭력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단이나 교회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아직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누가복음 11장 24절)

CHURCH TOO 이후 우리의 현실

CHURCH TOO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

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교회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가해들에 더해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교회의 '순결' 교육은 피해자들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든다. 결국 피해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대한 신뢰를 배반당한 채, 교회공동체에서 쫓겨나듯 떠난다.

교회법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벽이다. 감리회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교회법에 고소하려면 700만원(2018년 기준)의 재판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심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형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조차 교회법(<교리와 장정>)에 명기된 '정직, 면직, 출교'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론 피해 생존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지지자들 또한 알게 모르게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보다 성숙한 교회공동체의 'WITH YOU'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의로운 해결과정 수립

한국 교회에서 '정의로운 해결'의 반대는 '은혜로운 해결'이었다. 여기에서의 은혜는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이었다. 교회성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해외교단들에는 미연합감리회(UMC), 미국장로교회(PCUSA), 캐나다연합교회(UCC)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성폭력 제보를 받고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총회에서 채택한 교회성폭력 정책과 절차(지침)를 개교회·연회나 노회·기관에서 지키도록 규정한다. 목회자·교인 간 교회성폭력과 성적 비행에서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성폭력과 성적 비행을 인지한 목회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장로교회의 경우, 교회 관련자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치면 교회가 법적 책임을 지고 조사와 재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캐나다연합교회의 경우, 교역자가 교회나 기관에 고용될 때 성적 비행 정책에 관한 지침을 지키기로 서약하며, 해마다 연회에서 주관하는 3일간의 성폭력예방교육에 급여를 받는 모든 교역자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성폭력(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캐나다연합교회는 1992년, 미국장로교회는 2010년 총회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2018년 제32회 총회에서 여성들의 현장 건의로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정책과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연구소위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 중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그리고 감리회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일부 성폭력 관련 헌법 조항들을 이미 제정했다.

2. 제대로 된 예방 교육

무엇보다 교회성폭력은 다른 성폭력에 비해 '그루밍'

(길들이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한 교회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신학교와 교수들, 목사와 장로들, 교사와 임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인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사의 교육이 오히려 성차별적이거나 성희롱을 조장하지 않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3. 공동체적 회복과 치유

공동체적 회복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다.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이 일에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가?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과 공감에서부터 관계회복의 주체이자 의무자가 되어야 한다.²⁾ 충분히 오랜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치유를 만들어가야 공동체의 회복 또한 일어난다.

4. 교회의 성찰과 변화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고백한다. 교회공동체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건강하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교회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비민주성, 가부장적 위계·위력의 구조와 관습, '성직자'(목회자)에 대한 절대화(나아가 우상화) 등으로부터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성서해석과 설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공감과 소통의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때다. 

2)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 피해자의 목소리에 적절히 반응하는 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일, 성폭력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일, 그들의 두려움에 반응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 전문가를 소개해주는 일, 용기를 갖고 피해를 보고하는 일, 작지만 후원그룹을 마련하는 일, 재정을 마련하는 일,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일, 성폭력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 가능한 치유의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는 일 등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 결국은 미투운동의 핵심이자, ChurchToo!의 핵심이다. 그럴 때 With You가 시작된다." 김복기, "회복적 정의와 교회 그리고 with you", <교회여성과 지도력> 26호.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소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늘려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뿌리가 같다

5월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강릉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해 40도를 넘는 폭염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5월부터 시작된 더위는 기후변화가 일상임을 실감케 한다.

한국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은 기후변화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것 같다. 2월~3월, 미세먼지 고농도 일이 일주일 넘게 지속 되면서 시민들은 '재난' 수준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보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생성원인이 똑같은 화석연료 연소에 있다. 결국은 같은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전국 배출량 기여율을 보면 사업장(40%), 건설기계·선박(16%), 발전소(14%), 경유차(11%), 냉난방(5%)이 차지한다. 수도권 1위 배출원은 경유차(22%)이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기후변화대책이랑 일맥상통한다.

전기 사용 줄이고, 경유차 억제해야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석탄 발전을 규제하고 조기 폐쇄를 하려면 전기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가스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유차가 천만대 가까이 늘어난 것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값싸기 때문이다.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해야 경유차를 억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핵심대책에 대해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민들도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시민이 신뢰 속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와 기업이 당장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사건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기오염 측정관리 고도화 전략 수립,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 방식 개선, 시민들이 정보와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에 YWCA 책임 막중해

지난 4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로써 미세먼지 해결에 YWCA가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산업분야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업장의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40%에 달한다.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너지전환과 효율개선 사업을 결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018년 경기도에서 사업장 연료를 병커C유에서 LNG로 전환했는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이 81% 줄어들었다.

선박과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16%이다. 부산, 인천, 울산, 평택과 같이 항만이 있는 도시는 선박 대기



서울 남산의 미세먼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비교해 보았다. 출처 그린피스

오염을 잡아야 한다. 부산의 경우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15.5%,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37.8%를 선박이 차지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한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트럭 50만대, 혹은 경유차 5천만대와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선박 연료를 LNG로 바꿔야 하는데, 이 분야가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전국으로는 11%, 수도권에서는 22%이다. 경유차는 도심 생활공간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 어린이 통학차량부터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버스로 바꾸자. 운행시간이 유달리 긴 청소차량, 택배차량, 배달 이륜차의 연료 전환도 필요하다.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6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경유차 중에서도 화물차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거의 70%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화물차 구매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중심 물류체계를 철도로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경로당은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단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건물에서 공기를 환기할 때 필터를 통과하도록 설계해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공기 중 열을 회수해 냉난방에 활용하면 에너지도 절감된다.

핵발전소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단호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영광에 있는 한빛 1호기를 무면허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다가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핵연료봉이 손상될 뻔한 큰 사고였다. 미세먼지가 걱정된다고, 핵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꼴이다.

YWCA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주제로 한 강연과 소통의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원과 겹친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이 일은 YWCA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다. 최근 대기정체 현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줄었지만 고농도 일수는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렇기에 더욱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플라스틱 *디톡스’ 우리 모두 함께하자!

* 디톡스(detox)
신어로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일을 일컫는다.

출처 유엔환경계획한국협회

갑자기 더워진 5월. 청년토크를 위해 모이기로 한 5명의 청년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텀블러 들고 와”라는 말이 어느새 당연해졌다. 5월 환경주간에배를 맞아 최근 환경문제 중 가장 이슈인 일회용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참가 청년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실는다.

일상이 된 일회용

라떼 카페에서 일회용 컵 규제한 게 얼마나 됐지?

바닐라 2018년 8월 1일이니깐 거의 1년 정도 됐네.

커피 처음에 규제한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엄청 불편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깐 아무렇지도 않아.

녹차 나는 솔직히 카페에서 알바 하는데 컵이 너무 많아 져서 설거지가 힘들어.

초코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는 생명들 보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아?

녹차 솔직히 마음이 아프긴 하지. 근데 나랑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니깐 금방 잊어버리게 돼.

라떼 실천이 쉽지 않지. 그래도 공감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

초코 일상 속에서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안 쓰는 날이 있긴 할까?

바닐라 아니. 없을 것 같아. 음료수, 도시락처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 많을 테니깐.

녹차 일회용품은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

가장 불편한 일회용품

바닐라 배달음식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배달 어플이 생기면서 더욱 심각해졌어.

초코 예전 중국집들은 음식을 그릇에다 담아주고 나중에 가지러왔었잖아. 근데 요즘엔 중국집도 일회용품에 주더라.

커피 문제가 심각해지니깐 ‘배달의 민족’(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더라고.

녹차 맞아. 일회용 수저를 받지 않겠다고 체크하는 칸이 생겼어.

라떼 나는 카페나 식당에서 주는 빨대가 젤 불편해. 집에서 물이나 음료수 먹을 때 빨대 써

모두 안 쓰지.

라떼 근데 꼭 카페나 식당에선 굳이 빨대를 음료에 꽂아서 주더라.

바닐라 나는 사실 Y에서 행사할 때도 불편해. 다과를 준비해놓을 때 종이컵이나 냅킨을 필수로 두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것 같아.

초코 Y행사에서만큼은 일회용품이 없어지면 좋겠어. 텀블러를 들고 오라고 하고 혹시나 안 들고 온 사람을 위해 머그컵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

녹차 나는 비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이 세상에서 제일 화나. 잠깐 실내에 들어간다고 쓰고 금방 버리고, 비오는 날 그렇게 쓰이는 비닐이 하루에 몇 장일까?

바닐라 격공(격한 공감) 처음에 우산살 때 주는 우산싸개를 들고 다니던지, 건물에서 제공하는 싸개를 사용 후 반납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돼.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녹차 Y안에서 청년들은 암묵적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 같아.

바닐라 그러네. 모임이나 행사 때면 “텀블러 꼭 가져와”라고 말하거나, 같이 물건을 사러 가면 봉지를 안 받고 나눠서 들고 온다던가 하지.

커피 사실 나는 환경보호에 무덤덤했는데 Y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환경보호를 하게 된 것 같아.

라떼 맞아. 내가 바뀌니깐 Y친구 말고 주변 가족, 친구들도 바뀌더라.

녹차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작은 실천이 모이는 거 말이야.

커피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쓸 수 있는 것 생각해오기로 했잖아. 이야기해보자.

라떼 나는 옥수수 빨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쓰는 곳이 생기곤 있는데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난 별로였어. 옥수수 빨대는 플라스틱이랑 가장 비슷해서 좋은 것 같아.

초코 나는 미국여행 갔을 때 분리수거함이 없는걸 보고 충격 먹었어. 그냥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더라고.

바닐라 진짜? 환경파괴의 주범이면서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구나?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했잖아.

초코 미국 같은 큰 나라가 환경파괴를 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속가능한 삶

바닐라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발전을 하되 환경과 약자를 보호해야해.

초코 지금은 환경 파괴 때문에 동식물이나 일부의 사람 들만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되돌아올 거야.

커피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11년 밖에 안 남았대.

초코 대박. 11년 뒤면 우리는 아직도 30대야. 70년을 더 살아야하는데 어떡해?

녹차 그러니깐 우리 세대가 더욱 노력해야지.

라떼 이제는 윤리적 소비가 필수야. 조금 비싸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해야 돼.

녹차 윤리적 소비 좋지. 근데 윤리적 소비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돼.

라떼 윤리적 소비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야.

바닐라 맞아. 나는 예전에 Y에서 대나무칫솔을 만드는 ‘노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구매해서 사용해. 한 달에 만원만 내면 2달에 한번 씩 칫솔을 보내줘.

커피 청주Y에서 했던 ‘공정여행’도 윤리적 소비가 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로컬 푸드를 먹고, 이 모든 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

녹차 우와. 생각지도 못한 것도 윤리적 소비가 되는구나. 나는 아직 멀었어..

라떼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같이하면 되지!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도 충분히 대단해.

초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플라스틱 디톡스’라고 한대. 우리 모두 함께하자! ♻️



제1차 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워크숍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문운희

연합회 중점운동국 간사

한국YWCA연합회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회원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들을 한데 모아 지역에서 펼쳐지는 성평등운동 활동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월 30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YWCA 성평등운동 담당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다.

1922년 창립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된 YWCA는 성차별에 맞서며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초기 계몽운동을 시작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공창제도와 축첩제 반대에 앞장섰으며 호주제 폐지를 근간으로 한 가족법개정운동도 벌였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위향상에 중요한 과제인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썼다.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근로여성들을 초청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좌담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성들이 마땅히 승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열었다.

남성 독점 직종이 있던 시절, 고질적인 성차별 개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분야의 여성직종을 개발해왔다. 반면 산업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직업, 육아, 가사 등 삼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일과 육아, 가사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일찍이 보육운동을 펼치며 탁아소를 열기도 했다.

YWCA는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다. 2016년 전국 중점운동으로 채택된 '성평등운동'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총선과 대선에 대응해 여성의제를 개발해 필요한 정책들을 요구했고, 성불균형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남녀동수 개헌을 외치는 등 다양한 기자회견과 캠페인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작년 미투(#MeToo)운동을 시작으로 용기 낸 여성들의 외침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균열을 내고 있다. 여성이란 이유로 살인과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요구가 사회 모든 영역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YWCA는 미투(#MeToo)로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며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그 다짐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의 곁에서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워크숍 참가소감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난다

장미진

안산YWCA 팀장

환경이나 성평등 운동은 위기감이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적극적 실천을 하게 되는 면이 있어, 평소에 참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고민했다. 그래서 워크숍 등을 통해 알게 되는 지역사례들이 도움이 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나를 포함한 일부 지역YWCA 활동가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활동영역에 대해 사전지식 없이 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를 해 나가면서 터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워

크숍을 통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식과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게 된다.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고 사업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안산에서는 어떻게 지역청년들과 함께 성평등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지역에서 성평등 운동의 성과와 과정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기에 지역에서도 느리지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운동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와 활동이 있기를 바란다.

성평등 정책 확립되어 평등사회 되기를 기대한다

정은정

양산YWCA 간사

하루 하루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 정작 성평등 운동 담당자이지만 주도적으로 운동을 펼치진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자괴감과 회의감이 들면서 성평등 운동에 대한 교육이 간절했던 차에 워크숍이 열려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워크숍에서 회원YWCA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성평등 운동을 알 수 있어 좋았고, 인간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여성

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었고, 성평등 정책이 확립되어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평등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양산YWCA는 양성평등 공감콘서트,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성평등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북한어린이,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연합회 회관 앞에서 진행된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캠페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열린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캠페인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매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북한어린이,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5월 17일(금) 연합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 모인 모금액은 북한 신의주 지역 보육원의 콩기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거리 캠페인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품어내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특히 자유롭게 참여하는 바자코너를 열어 시민들이 나눔의 의미를 새기고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상황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우유 모금통 배분을 통해서 추후 모금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터를 열기 전부터 발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하는 시민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 기자들이 줄지어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은 남북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초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 5명 중의 1명은 만성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특히 여아의 발육부진율은 남아의 발육부진율보다 높다. 세계영양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양실조에 따른 빈혈, 발육 부진의 심각한 문제를 겪는 26개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 가입이 여

성의 빈혈 발생률은 30%를 넘고 있으며,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 당 82명에 달한다. 북한은 2016년 유엔 제재의 강화에 더해, 지난해에는 폭염과 태풍 솔릭, 홍수 피해까지 겪으면서, 경작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아 136만 톤의 식량 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43%에 달하는 1,090만 명에게 인도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유엔 보고에 따라, 국제 사회는 물론 미국도 긴급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한국YWCA가 1996년부터 전개해온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은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 평화적인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운동이며, 식량권에 기반한 인권 운동이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은 단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것 같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2017년 유엔은 북한을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 지역 12곳'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 전략 계획 2017-2021은 북한 내 사업 전략 우선순위를 식량 및 영

양 안보로 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정세의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이다. 북한 어린이의 건강을 지원하는 일은, 일시적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 일은 평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고, 남북 어린이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비핵화 및 유엔제재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반응과 5월 4일과 9일 북한의 발사체 발포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한반도의 봄이 다

시 멈춰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때에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평화는 쌀을 나누는 것(平和, 禾+口)이라는 글자의 풀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에 한 해 부족한 쌀이 100-140 톤인데 반해, 남한에 넘쳐나는 쌀은 200만 톤, 보관료만도 6,200억 원이다. 먹을거리의 나눔, 물품의 나눔, 마음의 나눔, 생각과 삶의 나눔은 이번 캠페인의 취지이자 의미였고,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에 물품을 제공해주어 나눔을 열어준 한미미 실행위원회께 감사드린다.

시민들의 작은 손길들이 북의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잘 전달되고, 이 정성과 사랑이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연대로 이어지기를, 또한 회복과 치유와 기쁨의 역사가 열려지는 단초가 되기를 기도한다. 

정동제일교회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5월 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드렸던 가운데가 이진용 위원

스도의 마음으로 품은 YWCA 지도력의 전통이 정동교회의 성도들에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YWCA의 창설자중 한 분인 김활란 박사와 고문태임 회장 등이 정동교회 출신으로 이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육신적 사역의 소명을 실천한 것이다.

캠페인은 유치부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어린이 분유캠페인 전단지 및 우유모금함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특별히 유치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평화교육을 다루는 공과공부를 하며 캠페인을 벌이기에 고사리 손으로 들려지는 모금액이 매년 200여 만원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이진용장로님은 성도들께 "북한어린이를 품고 기도합시다" 라며 캠페인의 전단과 모금함을 직접 나누며 모금을 독려한다.

"모금은 언제나 참여하는 사람에게 참여의 기쁨을 주기에 '거지밭'로 역할해도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진용 장로님의 말씀이다. 정동제일교회는 매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모금액을 보내주고 있다.

매년 5월 가정의달이면 정동제일교회에서는 '북한 어린이에게 생명을'이란 모토로 YWCA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이 벌어진다. 2013년부터 벌인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은 올해로 7년째로 이제 정동교회의 가정의 달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시무하는 이진용위원(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의 힘이 컸다.

YWCA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이 정동제일교회로 확산된 것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그리

한반도 전쟁 종식과 지속가능한 평화 위해 여성이 행동한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발족식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정서연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간사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5월 24일(금) 공식 발족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와 토론회가 같은 날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문이 열렸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 여성평화운동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성에 답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발족했다.

한국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동안 분단체제로서 아직도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분단은 그 자체로서 폭력인 바, 한국전쟁은 당장 종식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전쟁과 분단체제에서 성폭력, 젠더폭력의 피해자로서 살아왔고, 북 여성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결과로 고통과 희생을 치루며 살아

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비평화의 요인이며 군비증강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 군비증강은 곧 군사적 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군사적 경쟁 구도를 평화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는 것 이외의 확실한 대안은 없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여성평화네트워크는 이날 한국정부, 유엔, 미국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체제 형성의 당사자 역할을 할 것을,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회원국은 한반도 종전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미국은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신뢰를



발표 중인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형성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것에 대해 요구했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이 연대를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해 평화의 길, 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임을 말했다.

이러진 토론회는 '한반도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역사와 향후 방향'(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주제발표, '여성주의 외교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한반도 전쟁 종식 요구 결의안과 의회 로비 활동'(이현정 WCDMZ Consultant), '한반도 평화와 UN, 여성참여'(고유경 WILPF Consultant), '여성평화운동과 분쟁지역의 여성참여와 한반도'(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여성의 역할'(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여성평화운동 향후 과제로 한반도 평화 체제, 평화협정, 비핵화 등의 개념과 내용을 여성주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상언어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2020년까지 한반도 종전을 위한 교육과 조직,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의 주창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020년은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유엔안보리 1325결의안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3월 개최된 제6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식 후 이어진 토론회

(CSW63)에서는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1325결의안 20주년을 준비하는 '여성·평화·안보 행동의 가속화'를 선포했다.

한국은 2014년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으나, 형식적인 이행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자들은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한 합의노력이 부재했음을 말하며, 조영숙 소장은 글로벌 여성평화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한 여성참여와 젠더관점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조영미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명목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산나 연합회 부장은 남북 여성 모두 사회적 활동 참여 비율에 비해 의사결정과정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현실을 지적하며, 평화 체제의 한반도에서 남북 여성의 사회·정치적 지위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말했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보장,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의한 여성·평화·안보에 참여, 그리고 취약계층에 놓인 여성들의 빈곤화 방지와 노동권 확보를 통해 여성들의 인권과 리더십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함을 제안했다.

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과정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심을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 금남로에 5·18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민주

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 청년위원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중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2019년, 우리는 다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마주했다. 수많은 혐오 가운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혐오가 재발한 것이다.

편하되었던 과거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 어느덧 31년(1988년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을위한청문회' 기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5·18운동의 가치를 왜곡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5·18은 어떤 의미이며, 5·18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광주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5·18의 흔적

5·18의 역사를 알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민주평화기념관에 갔다. 두 건물은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금남로의 가톨릭센터와 옛 전남도청을 새롭게 꾸며 만든 곳으로 39년 전의 아픈 상처가 스며들어있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당시 사망한 희생자들의 이

름, 출생년도, 직업, 사망일자, 사망원인까지, 찰칵찰칵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끝을 모르고 넘어가는 영상을 보며, 그제서야 책 속에서만 만났던 5·18이 와 닿기 시작했다.

비상계엄령선포부터 시작해서 광주시민들의 시위,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의 투입, 이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 5·18운동의 과정을 기록으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용기였다. 1980년 5월 18일의 시위에서 잔인한 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19일, 금남로로 모여들었고 다시 시작된 경찰과 공수부대의 진압에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후 1980년 5월 27일, 잠시 물러났던 계엄군이 다시 진압해 '소탕작전'을 벌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시민들은 당시 거점인 전남도청에 남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뿌리, 5·18민주화운동

대한민국에서 시민의식을 논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되는 도시는 바로 광주다. 계엄군이 잠시 물러났던 22일, 공권력이 사라졌던 광주를 정부와 언론은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의 광주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했다. 절도와 살인 같은 강력범죄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민공동체를 만들어내 함께 버텼다.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모였으며,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광주의 5·18, 전국의 5·18이 되다

그러나 5·18은 폭동으로 치부되어 폄하되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힘은 5·18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부터 83년까지,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학생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터져 나왔고 이는 당시 정권이 유지하던 억압적 체제를 깨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1987년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투쟁했던 수많은 열사들은 전국의 5·18이었던 것이다.

최후의 항전지 옛 전남도청에서 5·18을 느끼다

5·18기록관을 나와 향한 곳은 옛 전남도청, 지금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였다. 옛 전남도청은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잠시 물러났던 22일부터 시민들의 거점이 되었다. 시민군의 본부였던 본관, 최후항쟁을 결의했던 별관,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 무기류를 모아 두었던 회의실 등은 80년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옛 전남도청은 독특하게도 예술 작품으로 5·18을 기억하고 있었다. 차량시위를 재현해 클락션 소리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들고 볼 수 있는 곳, 집단발포 앞에 서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까지. 기록관에서 글과 영상을 보며 받았던 충격은 예술 작품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더욱 커졌다.



당시 시민들의 거점이 되었던 옛 전남도청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다

옛 전남도청에서 우연히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와 함께 찾아온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5·18이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것을 실감했다. 5·18에 참여했던 이들, 그들이 남긴 유산으로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더 발전된 민주주의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까지 한 공간에 함께 있었다. 따라서 혐오와 갈등으로 얼룩진 현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80년 광주의 시민들이 올바른 사회를 얻기 위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신념과 용기를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학살' 작전을 벌였고, 군대는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전에 순순히 응했으며, 언론은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버린 채 정부에 협조했던 것이 5·18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가 5·18에 씌운 프레임을 믿었고, 지금도 이를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금의 혐오는 이런 망각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 27일 최후의 항전 직전, 박영순씨가 옛 전남도청에서 가두방송을 통해 전했던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바를 시사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릴 잊지 말아주십시오.”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했던 당시의 정권은 5·18민주화운동을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했고, 은폐하려 했으나 은폐하지 못했다. 이는 광주의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의 5·18들이 이뤄낸 바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편하하려 했으나 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WCA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최용신 기념관

이윤숙

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 동안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역사 속에 묻혀있던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발굴되고 그들의 삶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뜻 깊은 해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최용신도 살아있는 역사인물로서 널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은 하나의 픽션이 되어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소설 <상록수>의 채영신에서 살아있는 역사인물 최용신으로

소설의 한 축인 남자 주인공 박동혁과의 연애 이야기를 제외한 많은 이야기는 사실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최용신’의 헌신적인 삶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설과 영화로 재현된 ‘채영신’은 가련하고 헌신적인 이미지로 ‘가공’의 이야기로 굳어져서, 오히려 독립적인 여성주체로의 그 치열한 삶이 제대로 조명받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가혹한 탄압에 맞서 가난하고 피해한 삶을 산 민중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친 그의 삶은 소설 속 가공의 삶이 아니라 되새겨야 할 독립운동으로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1935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역사인물 최용신은 1995년 서거 60주년이 되었을 때 국가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일제시대, 고통 받는 여성민중들을 위해 삶을 불태우다

최용신은 1909년 함경남도 현면 두남리에서 태어났다. 일찍 기독교가 전파된 그 곳에서 조선독립을 열망하는 애국적 집안 분위기에서 성장한 최용신은, 원산 루씨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29년 협성신학교에 진학하였다. 그곳에는 독립운동가 황에스터 선생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여성비밀결사체의 모체인 ‘송죽회’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했고, 무엇보다 협성신학교에 ‘농촌사업지도교육과’를 신설하고 농촌사업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YWCA가 중점운동으로 삼고 있던 농촌계몽운동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최용신은 그런 그의 뜻에 감화 받아 자기 일생을 농촌의 민중들을 위해 바치겠다는 결심을 실천에 옮겼다. 최용신은 두 차례의 지난한 농촌 실습을 거쳐 마침내 1931년 10월, YWCA의 파송으로 안산 샘골에서 농촌계몽운동을 시

작하게 된다.

가부장제의 낡은 관습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농촌에 젊은 여성이 혈혈단신으로 들어와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와 각오를 필요로 한다. 최용신은 처음 마을 주민들의 홀대와 무관심에 굴하지 않고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굶은일을 도맡아 하고 함께 일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갔고, 아이들과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 한글과 성서를 가르쳤다. 또한 피폐한 농촌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예, 재봉, 살림법 등 실용과목들도 헌신적으로 가르쳤고 마침내 샘골 학습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에게 배우려는 학생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많아진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최용신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천곡학원 건축발기회’를 조직하여 모은 돈으로 학원 건축을 시작, 1933년 1월 15일 마침내 천곡(샘골)학원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당시 황민화정책을 펴며 조선어말살정책을 펴던 일제는 천곡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주시하다 강제로 수업을 정지시켰다.

하지만 최용신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조선어를 계속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자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극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계를 느낀 최용신은 농촌계몽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동안의 과로와 정신적 피로가 더해져 각기병이 발병, 결국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1934년, 샘골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다시 샘골로 돌아오지만, 일제 탄압은 더 극악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반으로 줄었던 YWCA 지원금도 완전히 끊기게 된다. 병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지원을 호소하고 수업을 계속하던 최용신은 마침내 쓰러져 버렸고, 1935년 1월 23일, 결국 사망하고 만다.


독립운동으로서의 농촌계몽운동

변장을 한 채 지령을 전달하거나 총을 들고 지분을 뛰어

다니는 모습을 여성독립운동가의 대중적 이미지로 본다면, ‘최용신이 왜 여성독립운동가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나라의 말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일제에 맞서 지속적으로 민족의 해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각성이 필요했고, 가혹한 식민지배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이 택한 노선 중의 하나가 바로 농촌계몽운동이었고, 특히 기독교계가 이에 앞장섰다.

이 가운데서도 YWCA는 김활란과 황애덕 등이 중심이 되어 농촌계몽운동을 연구하고 예산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중점운동으로 삼았으며, 최용신을 현장에 파송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탄압에 굴복하여 지원금을 줄이다가 결국 끊어버린 일은 두

고두고 아픈 역사로 남는다.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니”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그의 유언장은 그의 비통함이 처절하게 배어나와 우리를 더 아프고 부끄럽게 한다.

최용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식민지 조국의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 바쳤고 극심한 탄압을 받다 요절하였지만 한 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샘골학원의 교가 속에는 식민지 농촌의 민중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꿈꾼 그의 희망이 절절하게 살아있다. 독립운동가로서, 실재하는 역사의 인물로서 오늘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더 분명해진다. 



1929년 협성신학교 시절, 앞줄 오른쪽이 최용신 선생. 출처 기독교신문

“반월성 황무지 골짜기로 따뜻한 햇빛은 찾아오네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빛
오늘은 이 땅에 씨 뿌리고 내일은 이 땅에 향내 뿜쳐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싹 우리의 강습소는 조선의 싹
황해의 깊은 물 다 마르고 백두산 철봉이 무너져도
우리의 강습소는 영원무궁 우리의 강습소는 영원무궁”.

“여성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치워달라”

김난주

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영화는 “저는 여성에게 특혜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을 밟고 있는 발을 좀 치워달라는 것뿐입니다.” 를 말하는 긴즈버그의 낮은 목소리로 시작된다. 이 명언은 프론티어로 대 리처드슨 사건(1973)의 변론에서 긴즈버그 한 말이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과 그녀의 수술을 알리는 기사들이 SNS에 많이 등장하였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누구인데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지대할까? 2018년 12월 25일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On the Basis of Sex’¹⁾ 가 미국 전역에 개봉되었고 2018년 폐암 수술은 1999년 대장암과 2009년 췌장암에 이어서 세 번째 수술인 것도 알게 되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시즌의 세 번째 암수술 이후엔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긴즈버그의 퇴원과 회복 여부, 일상 복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에 대한 미국의 팬덤을 확인하게 되었다.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작년말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개봉된 긴즈버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의 국내 개봉을 기다리던 필자는 ‘나는 반대한다(RBG)’의 개봉에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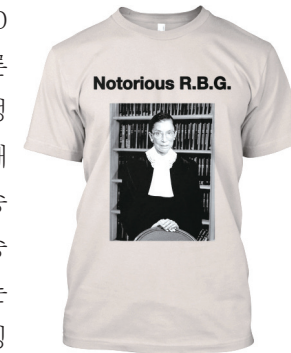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빌 클린턴 대통령 인터뷰다. 1993년 당시 대법관 후보자로 선택하기 위한 긴즈버그와 인터뷰에 대해 클린턴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여 15분도 안 되어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다. 1933년생으로 세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60세 여성이라는 것은 빌 클린턴이 긴즈버그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데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았다. 긴즈버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1993년 치열했던 이틀간의 대법관 지명 의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법관에 취임한다. 긴즈버그는 승진사다리에서 이탈한 적이 없고 자신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때가 되어 최고 임명권자에게 발탁된 것이다.

1956년 가을 하버드 로스쿨 입학 당시, 전체 약 500명 중 9명의 여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긴즈버그는 이후 1970년대 럿거스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 ‘프론티어로 대 리처드슨 사건’을 시작으로 여성 등 소수자를 향한 법에 명시된 차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성차별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을 맡는다. 대법원 사건 6건 중 5건에서 승소하며 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1980년대는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지명으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취임한다.

대법관 취임 이후 1996년 150년간 남자 생도들만 받아온 버지니아 군사 학교(Virginia Military Institute's, VMI)에 한 여학생이 이를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긴즈버그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시작으로 대법관으로 성평등과 소수를 위한 판결을 이어간다. 대중들의 인지도를 얻어 가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 대중들은 긴즈버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판결문을 인용하기 시작한다.

남매를 둔 워킹맘으로서 법률가로서 최고의 위치인 종신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긴즈버그의 천재적인 능력이 필수조건이었고, 가족의 지지와 배우자의 내조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긴즈버그를 회상하는 남편은 웃으면서 엄마는 주중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주중 피로를 풀기 위해 중일 잠을 잤다고 말한다. 엄마는 요리를 못해서 엄마가 만든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한편, 워킹맘으로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긴즈버그의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똑똑한 아내를 지원한 남편 마티 긴즈버그의 내조도 큰몫을 했다. 이들 부부의 동지에는 루스 긴즈버그가 마티 긴즈버그와 함께 로스쿨에 입학해 당시 암에 걸린 마티의 간병과 어린딸의 육아, 학업까지 감당해낸 루스에서부터 다져졌다 할 수 있다.



긴즈버그 굿즈 중 하나인 티셔츠
출처 경향신문 손제민 블로그

미국 청년 여성들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용기와 단호함에 열광한다. 여성 법학도가 2013년 켈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에서 긴즈버그의 격렬한 반대 의견에 감동받아 처음 부르기 시작한 Notorious RBG²⁾가 새겨진 티셔츠, 텀블러 등 긴즈버그 굿즈가 등장한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여성의 낙태권, 동성결혼 등 미국 사회를 가르는 이슈에서 소수자 중시 판결은 여성과 밀레니엄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반대한다’는 인터뷰이로 출연한 긴즈버그와 함께 동시대인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차별 철폐에 맞선 글로리아 마리 스타이넴(Gloria Marie Steinem)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유익하다. 영화관을 나오며 긴즈버그 대법관의 주옥같은 판결문을 녹음하여 반복하여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90세까지 하시겠다는 목표를 꼭 이루시기 바란다.

긴즈버그가 참여한 주요 재판을 소개하고 글을 맺는다.³⁾

프론티어로 대 리처드슨 사건(1973) - 70년대 공군 소위였던 사론 프론티어로가 기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들은 받는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건 일화

와인버거 대 와이젠펠드 사건(1975) - 어린 아들을 둔 ‘홀아버지’였던 스티븐 와이젠펠드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로 하고 사회보장국에 보육 수당을 신청했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을 건 일화

연방정부 대 버지니아 주 사건(1996) - 150년간 남자 생도들만 받아온 버지니아 군사 학교에 한 여학생이 이를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화

릴리 레드베터 대 굿이어 사건(2007) -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 차별을 받아왔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고소한 일화

셀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2013) - 대법원이 참정권 차별을 감시하던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더 이상 혹은 투표권자들에게 차별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근거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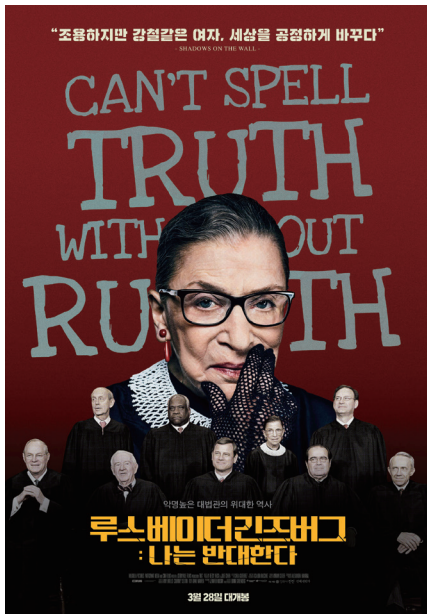
버웰 대 하비로비 사건(2014) - 회사가 신앙을 이유로 피임을 직원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 다수 의견을 반대한 일화

2) 긴즈버그에게 Notorious RBG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법대생 사나 니즈니크니크와 MSNBC 기자 Irin Carmon은 ‘Notorious RBG: The Life and Times of Ruth Bader Ginsburg’라는 제목의 책으로 만들었다. 2015년 10월 출판된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등극한다.

3) 오마이뉴스 [미리 보는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2019.3.2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Ruth_Bader_Ginsburg#Supreme_Court_jurisprudence



2015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아이콘 부문에 선정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출처 KBS뉴스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감독 벤티 웨스트, 줄리 코헨
2019.03.28. 개봉, 98분

1) 한국에서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6월 개봉 예정이다.

월례아침기도회



5월 월례아침기도회가 5월 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평화·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숙진 교수(이화여대)가 ‘정상가족 이후의 가족’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평화·통일위원들의 ‘오 놀라운 구세주’ 특송이 있었다.

은학의집 개관 19주년 기념예배



YWCA복지사업단이 운영하는 ‘은학의집’이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여 5월 14일(화)에 기념예배를 드렸다.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의 사회로 김은경 은학의집 운영위원 기도, 은학의집 운영위원과 직원이 함께한 특송, 유장옥 목사(할렐루야교회)의 설교, 19주년 기념영상관람 및 축하케이크 커팅식,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 5월 개관한 은학의집은 2019년 신규 CI 작업과 시설 개보수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2차 길 위의 평화포럼



제2차 길 위의 평화포럼이 5월 16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연합회 위원, 회원YWCA 참가자, 북한이탈주민, 청년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장 세종연구소 기획연구본부장이 ‘북한의 정치 및 권력관계: 수령-당-국가군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5월 17일(금) 연합회 회관 앞에서 펼쳤다. ‘북한어린이,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주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민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장터를 운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24~25쪽 참조)

동일임금의 날 토론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국회의원 신용현의원실은 5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영수 회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6~11쪽 참조)

부속시설 특별조사 평가지표 설명회

전국 회원YWCA 사무총장 및 사회복지시설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속시설 특별조사 평가지표 설명회’가 5월 23일(목)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연합회는 올 해



‘2019 YWCA 부속시설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역량과 YWCA 부속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본부는 시설운영체제로서 책무성 강화, 부속시설은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공공성, 책무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날은 부속시설 특별조사의 배경과 사회복지시설의 현안과제를 공유하며, YWCA 부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40차 불의날 탈핵캠페인



240차 불의날 탈핵캠페인이 5월 28일(화) 서울YWCA 주관으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시민 실천 캠페인’ 주제로 연합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YWCA 실무활동가 6명, 성남YWCA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7명, 연합회 탈핵생명위원 이종임 위원장, 실무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명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미세먼지 줄이는 녹색실천 할래요!’에 서명참여를 독려하며 화분을 나눠주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영광(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공유하기 위해 ‘무면허·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끊임 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와 주최



하고 한국YWCA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하는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5월 21일(화) 빈들공동체감리교회(대전 중구)에서 열렸다. 제36회를 맞는 올해 연합예배에서 차영희 대전YWCA 위원장이 기도를 낭독했다.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주제말씀은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34:14)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신앙적, 윤리적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YWCA연합회 비롯한 여성단체 ‘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5월 24일(금) 공식 발족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동해 온 YWCA연합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제개발과 미국 의회에서 의 한반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공외교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6~27쪽 참조)

제18회 식품안전의날 기념 강연회

제18회 식품안전의날 ‘식탁을 바꾸는 시간’ 기념 강연회가 5월 14일(화) KT스퀘어드림홀에서 열렸다. 한국YWCA를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가 주관한 이 행사는 회원, 일반시민, 기업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한영수 소협 부회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마술쇼, 오프닝공연, 이옥정

연합회 소식



KBS 프로듀서의 '세계 식탁 속 음식문화를 말하다!',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떡방·국방 식탁 위를 점령하다!', 배지영 중앙일보 기자의 '안전한 식탁을 부탁해'

강연 순서로 펼쳐졌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인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식품환경만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사회에 알렸다.

동정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부위원장 위촉 (2019. 4 ~ 2021. 4)

인사

사직 : 박미선 법인사무국 회계간사 / 2019. 5. 31
채용 : 신수진 법인사무국 회계간사 / 2019. 5. 1 ~ 12. 31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YWCA 긴급구호 모금운동' 현황보고

(2019. 4. 8 ~ 2019. 5. 24)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회원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준비회, 김해YWCA, 남양주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세종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충주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총 38개)	25,853,600
개인기부	김영자, 김형, 이명혜, 이은영	430,000
연합회		5,000,000
	합계	31,283,6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4. 1 ~ 2019. 4.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민영희,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민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명심, 양종원, 엄세현, 엄호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765,000
개인기부	강건영, 왕세영, 왕강, 임국이, 익명	111,800
협력교회	기쁨의 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성교회	130,000
기관 및 단체	명성약국, 에쎬레젤라또(명동점), 알파 명동성당점	7,110
	합계	2,013,910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19. 4. 1 ~ 2019. 4. 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기부	구정혜, 권미형, 김말숙, 김미영, 김서연, 김재신, 김재연, 김진용, 김충민, 김혜연, 노인자, 민경준, 민경찬, 민병재, 민승기, 박미선, 박세천, 박은혜, 박축복, 배정미, 신은목, 이주영, 이희정, 임국이, 임진영, 장미란, 정무성, 정은주, 하은경, 홍순옥, 무명1	1,110,000
5년 약정 4월완납 명단	박재경, 송록희, 윤정분, 이유림, 지옥정, 홍인숙	
회원YWCA	거제Y, 서울Y강남지부, 수원Y, 안동Y, 양산Y, 인천Y, 제천Y, 창원Y, 춘천Y, 충주Y, 하남Y	2,760,000
	합계	3,870,000

회원이야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겠습니다

양지혜

전남대학교 1학년 · 남원YWCA 회원



양지혜 학생이 후원자 이봉진 박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있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성적은 꾸준히 올랐으며 장학금을 받은 이후 학기에 전교 1등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란 시간은 아직 어린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처음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힘들고 고단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YWCA '고의순 장학금' 덕분에 제 부담감이 덜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 여느 고등학생답게 웃고, 울고, 즐겁고, 알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희망을 불러주신 YWCA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되어 새로운 꿈의 날개를 펼쳐 가고 있는 양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17살 때부터 자립해 생활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없었기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아 생활비, 교육비를 벌었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많았고 생활비를 줄이며 교재를 구입하여 지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중식만 먹고 저녁은 배고프면 간단한 빵이나 스낵류를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남원 YWCA에서 고2, 고3을 지내는 2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충당하고 필요한 문제집들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입할 수

고의순 나눔장학금

고의순 위원 가족이 YWCA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2016년 11월 '고의순 나눔장학금' 1억5천만 원을 약정하고 매년 240만 원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기금은 사회 소외계층, 어려운 가정의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경기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회원증모발대식



광명YWCA는 4월 29일(월) 2019 광명YWCA 회원증모발대식을 열었다. 회원증모 의미를 나누고 양적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광명YWCA는 지역사회에서 회원을 발굴하여 YWCA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도시&여성&안전 고양2019 프로젝트’



고양YWCA는 4월 17일(수)부터 10월 31일(목)까지 ‘도시&여성&안전 고양2019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양시민 20명이 참여해 매주 2회 재난안전분야에서의 여성 안전역량 강화 교육, 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안전조례, 도시공간, 고양시 여성안심사업, 재난대피시설 등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프로젝트 결과로 성인지 관점의 안전정책을 만들어 의회와 집행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DMZ민(民)+평화손잡기’

남양주YWCA는 4월 27일(토) 파주 금파리에서 열린 ‘DMZ민(民)+평화손잡기’에 참여했다.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예배와 손잡기 퍼포먼스로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에코스쿨 환경교육



부천YWCA는 5월 7일(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에코스쿨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탈핵 이야기, 생활 속 방사능 알아보기, 에너지전환, 우리주변 환경이야기 등 이론교육과 천연제품 만들기, 재활용품으로 인테리어제품 만들기 등 체험교육을 총 15회기로 진행한다.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으로 본 교육 이수 후 지역사회 환경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성남YWCA

김자혜 간사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성남YWCA 일일카페



성남YWCA는 4월 23일(화) 성남시 하대원교회에서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성남YWCA 일일카페’를 열었다. 성남YWCA 이사, 위원, 자원봉사자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고, 시민과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봄맞이 생태환경체험



수원YWCA는 4월 20일(토)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대상 아동 25명과 경기도 여주로 생태환경체험을 다녀왔다. 딸기 따기, 천연 염색체험, 수목원 생태체험 등 생명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세월호 참사 5주기 ‘4월 음악회’



안산YWCA는 4월 13일(토)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 ‘4월 음악회’에 참여했다. ‘천명의 소리, 진실의 꽃이 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 안산YWCA 회원들과 1000인 합창단으로 참여해 세월호 5주기를 추모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루찾집

안양YWCA는 5월 14일(화) 안양감리교회에서 ‘행복 나눔 사랑 한 스푼’ 하루찾집을 열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가정폭력상담소, 안양YWCA본부와 쉼터 등 100여 명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찾집을 운영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고, 이번 수익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의정부YWCA

김흥례 부장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의정부YWCA는 4월 30일(화)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세상을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박세나 목사(의정부장로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영상으로 보는 의정부Y 40년’을 시청하고, 창립 멤버 박종희, 안정란 증경회장이 ‘선배가 들려주는 Y이야기’ 시간을 가졌다. 현악 4중주 연주, 인디가수 하리니의 축하연주도 있었다. 이사, 위원,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아이들보미 양성과정 교육



하남YWCA는 4월 15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아이들

회원YWCA 소식

보미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40시간 프로그램으로, 전문가가 아기돌보미 역할과 윤리, 신생아 발달과정 이해, 아가마사지 원리와 실습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돌봄 현장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청소년동아리 연합워크숍 '민주시민교육-소통'



거제YWCA는 5월 11일(토)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20여 명이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소통'을 주제로 청소년동아리 연합워크숍을 진행했다. 김순향(올림상당소) 강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 태도를 강의했다. 거제YWCA는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 거제시상담복지센터, 거제YMCA와 함께 '2019년 청소년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창립 96주년 기념예배 및 갈라콘서트



대구YWCA는 4월 20일(토) 대구백화점 프라임홀에서 창립 96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갈라콘서트를 열었다.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대구YWCA 96년 역사를 돌아보고 축하했다. YWCA 회원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애들아, 밥 먹자'



마산YWCA는 5월 8일(수) 무학여자중학교에서 아침식탁 캠페인 '애들아, 밥 먹자'를 진행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삼각김밥과 음료,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직원들이 동참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원데이클래스



부산YWCA는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4월 30일(화), 5월 3일(금)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했다. 메이크업 강좌, 카네이션 2단 박스 만들기 강좌를 열었다. 20여 명의 교육생이 참가했다. 앞으로 취미미술(아크릴화 그리기), 커피교실, 정리수납 특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YWC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사천YWCA는 5월 9일(목) 이사, 위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회원증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운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각 대대별로 이름, 구호, 목표를 발표하며 전년도 대비 회원수를 늘릴 것을 다짐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찾아가는 환경교육



양산YWCA는 5월 8일(수), 5월 15일(수) 양산 웅상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초등 4-6학년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EM 이론편과 EM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을 했다. 양산YWCA는 지역민들이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펼치고 있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울산YWCA는 4월 6일(토) '2019 Y-틴, 대학청년Y 인준식'을

진행하였다. 서정순 울산YWCA회장의 환영사, Y-틴과 대학청년Y 임원 인준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서 올해 청소년중점운동인 '청소년 진로'를 주제로 자신의 꿈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공정무역 부스 운영



진주YWCA는 5월 25일(토) LH운동장에서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진주시 공정무역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진주에서 아시아를 여행하다'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공정무역 퀴즈, 아시아 전통놀이 체험시간을 마련했다. 진주시 공정무역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진해YWCA

이재경 부장

진해YWCA 다문화어울림합창단 창단식



진해YWCA는 5월 2일(목) 진해YWCA 회원과 결혼이주여성의 멘토-멘티 결연으로 이루어진 '진해YWCA다문화어울림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정태성 지휘자와 오순아 진해YWCA 이사가 반주를 맡는다. 이날 창단식에 건강보험공단 진해지사 임직원이 함께해 다문화합창단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회원YWCA 소식

창원YWCA

김진아 간사

2019년 이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회원증모 발대식



창원YWCA는 5월 3일(금) 진해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이사·위원 역량강화워크숍과 2019년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40명이 참석해 YWCA 정체성 교육, 부서별 회원증모 전략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애들아, 밥먹자’



통영YWCA는 농협 통영시지부와 5월 3일(금)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농협 통영시지부가 쌀과 음료수를 후원하고 통영YWCA가 삼각김밥을 준비해 통영여고 학생 800여 명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 촉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다.

포항YWCA

이유정 간사

한글반 야유회

포항YWCA는 5월 2일(목) 성인문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글반 야유회를 진행했다. 낙동강 역사이야기관과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이 쉬과 힐링 시간을 가졌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



강릉YWCA는 5월 13일(월)에 2019년 상반기 이사·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실 연합회 국장이 YWCA 목적문을 강의했다. 이어 분임 토의와 발표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YWCA 운동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창립 97주년 시민걷기축제



서울YWCA는 4월 27일(토) ‘깨어있는 여성이 만드는 세상

의 변화라는 주제로 남산공원에서 창립 97주년 시민걷기 축제를 열었다.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공원을 걸으며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이사·위원·실무자교육



속초YWCA는 4월 16일(화) 이사·위원·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적문 여성 훈련을 주제로 이천진 목사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교육을 통해 YWCA 운동 방향, 회원증모의 중요성, 자원활동가의 역할 등을 공유했다.

인천YWCA

이강희 간사

전직원 연수



인천YWCA는 4월 27일(토) 김포 문수산성에서 전직원 연수를 진행했다. 본부와 부속시설 직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YWCA 50주년을 앞두고 지부별로 비전선언문을 작성하고, 인천YWCA 목적과 사명을 공유했다. 또한 ‘DMZ 민(民)+평화손잡기’에 참여해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부활절 계란 나누기

원주YWCA는 4월 17일(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 자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주었다. 예



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춘천YWCA는 5월 14일(화) 춘천 명동입구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춘천YWCA가 주체가 되어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 춘천클럽(BPW),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과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와 여성의 임금차별을 알렸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회원증모 발대식



회원YWCA 소식

광양YWCA는 5월 9일(목) 회원증모발대식을 열었다. 이사, 위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 소개와 회비의 쓰임을 안내하고 회원운동체인 YWCA 운동에서 회원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제1차 이사·위원 연수



광주YWCA 2019년 제1차 이사·위원 연수회를 4월 18일(목) 지리산 더K가족호텔에서 진행했다. 박대영 목사(광주소명교회)의 'YWCA와 기독교 세계관' 주제말씀, 장혜숙 중경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부의장)의 평화통일 강의가 있었다. 광주YWCA 지도자로서 YWCA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여성리더로 섬길 것을 다짐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Y-틴·대학YWCA 연합 인준식



목포YWCA는 5월 11일(토) 정명여중고등학교에서 Y-틴, 대학Y, 지도교사, 이사, 실무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목포YWCA Y-틴·대학YWCA연합 인준식'을 진행했다. 12개 학교 Y-틴과 5개 대학교 대학Y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예배, 위원장 환영사, 연합회 회장상 표창장과, 동아리 인준장 수여, 회원선서 등이 있었다. 이어 중점 운동 소개, 축하공연 등을 통해 Y-틴과 대학YWCA를 정식 동아리로 인준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서귀포YWCA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교육(총40시간)을 운영했다. 현장실습까지 마친 수료생들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서귀포YWCA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총 57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양성했으며,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순천YWCA는 4월 27일(토) 아름다운가게 순천중앙점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기증한 물품을 현장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로, 순천YWCA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했다. 이날 수익금은 YWCA 주암생명숲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여수YWCA

김혜영 간사

'애들이 밥 먹자!'

여수YWCA는 4월 30일(화) 여수공업고등학교, 종교중학교에서 '애들이 밥 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여수YWCA와 부속시설 직원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 1,300개와 음료수를



나눠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주) 한화 여수 사업장이 동참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제6기 산모·신생아관리사교육



익산YWCA 5월 16일(목)부터 26일(일)까지 제6기 산모·신생아관리사 교육을 진행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직업윤리, 관리자 역할 등 총 50시간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으로 산모·신생아관리사 20명을 배출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평화통일 기도회



전주YWCA는 4월 7일(일) 전주남문 녹두광장에서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하고 총 9개 단체가 함께 하는 '제30주차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다. 전주YWCA가 주관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평화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원데이클래스



제주YWCA는 4월 19일(금) 하나금융VIP룸에서 원데이클래스 1강 '레몬오일&레몬소금만들기'를 진행했다. 제주YWCA회원 15명 참석한 이날, 박혜정 이사(레몬농장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YWCA를 알리고 회원을 모집했다.

중부

논산YWCA

조아영 간사

청소년 에너지교육



논산YWCA는 청소년 에너지교육과 에너지절약활동으로 사회성 및 소통 리더십을 키우는 '청소년 에코보라'를 4월 6일(토)개강했다. 학교가 제안하고 YWCA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3개 중학교 청소년들과 매월 2회 교육과 체험, 견학,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에너지 다이어트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식

대전YWCA는 4월 25일(목) 도안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회원YWCA 소식



서 '에너지 다이어트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자조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YWCA

허미정 부장

회원증모 발대식



세종YWCA는 5월 9일(목)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개회예배,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특강, 장은정 세종YWCA 부장의 사례발표 등을 하며 회원증모운동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YWCA

박미숙 간사

사랑나눔 바자회

천안YWCA는 5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회관 마당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봉제인형 판매를 통한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활동', 청년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프리마켓', 친환경 먹거리 및 EM제품 판매를 통한 탈핵생명운동을 실천했다.



청주YWCA

이현주 팀장

좋은영화상영회



청주YWCA는 4월 11일(목) 청주YWCA 청년공간 일차청에서 '좋은영화상영회'를 열었다. 여성주의 영화에 관심 있는 청주시민들이 모여,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델마>를 상영했다. 청주YWCA '좋은영화상영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여성주의 영화를 보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YWCA

이에림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충주YWCA는 4월 5일(금) 2019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1부는 충북여성재단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의, 2부는 YWCA 목적문 교육을 진행했다. 충주YWCA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하고 회원증모운동의 동기부여시간이 되었다.

YWCA 역사관

이제



한국YWCA 역사 기록에 동참해주세요!

한국YWCA 활동 사진과 역사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YWCA 아카이브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국YWCA 관련 사료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어 ywcap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의 예 : 문서, 사진, 오디오, 영상, 박물관, 도서 등)

기증자 이름

이메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증하실 사료의
내용과 분량